

“학교시설 적극 개방할 것”

서 교육감, 익산시의원들과 교육현안 논의... 14개 시군의회 간담회 마무리

서거석 교육감은 11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운동장 개방 폐교 활용 통학버스 노선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유재구 의원은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조남석 의원은 지역 내 폐교 현

황을 언급하며 “익산시와 상호 협력해 지역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덕 의원은 “전북 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

요하다”면서 “창의·집약적 체험시설인 꿈나무 창작소를 건립해달라”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용포초등학교 통학버스 노선을 시내권까지 확대해달라”고 했고, 오임선 의원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달라”고 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해외연수 확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안면 어울림센터(익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산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전용구장 제조작업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개방 요청에 대해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는 “폐교는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지원청의 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후 지자체가 공공목적 활용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꿈나무 창작소 건립 건의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익산시와 함께 사업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교육감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추진한 도내 14개 시·군의회 간담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11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약으로부터 학생 지킬 것”

서 교육감,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거석 교육감은 11일 전북도교육청 접견실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로, 마약 척결 공감대 확산 및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의 지목을 받은 서 교육감은 이날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



은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과 홍보

를 강화하겠다”면서 “교육가족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학생들과 학교 현장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후속주자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동국 전 축구 선수를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의 장교·공학도 꿈꾸신다면?

도교육청, 13일 사관학교

17일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입시설명회 잇달아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3일과 17일 두차례 사관학교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시모집 원서 지원 6회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13일 오후 1시에는 도교육청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사관학교 입시설명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전년도 입시결과를 안내하고, 각 학교별 2024학년도 전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세부적인 입학전형이 궁금한 학생·학부모를 위해 사관학교별로 상담도 진행한다.

이어 17일 오후 6시 30분에는 도교육

청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설명회가 진행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입학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와 상담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사관학교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특수목적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대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입시 정보와 진로 탐색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아이들에 기쁨을... 간식 지원사업 진행

전북대 산학협력단 운영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전주·군산시 치킨 등 제공

올해는 익산서 505마리 지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 아동들을 위한 간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제공)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이하 지원단)이 아동들을 위한 간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터 전북88호 회원인 '이희상' 씨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지원단은 이 사업을 통해 전주·군산 지역아동센터에 치킨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 올해는 익산 지역아동센터에 505마리의 치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간식을 지원받은 군산 지역아동센터의 한 아동은 지원단에 감동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아동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000치킨이 맛있다고 했는데,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해 줄 말이 없었어요. 이 치킨을 먹어보고 친구를 말처럼 맛있어서 놀랐어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편지에 적었다.

박신애 단장은 “아동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희상 후원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 간식지원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의 성장기 아동들에게 건강한 영양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먹는 즐거

움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자의 뜻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주대, 도내 기업 탐방

김제 소재 대승그룹



전주대학교는 지난 10일 외국인 유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김제 지평선 신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대승그룹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일 외국인 유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김제 지평선 신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대승그룹을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 활력 상승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법무부의 지역 생활회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 2월 10명의 외국인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체에 방문해 회사 소개 및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 설계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대승 최명락 이사는 “여러분의 선택들이 적응도 잘하고 현장에서의 반응도 좋아 채용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베트남 응응종 틴(4년)은 “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승그룹은 (주)대승, 대승정밀(주), (주)일강로 구성 현재 김제 대동농공단지와 서흥농공단지, 지평선산업단에 총 5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스마트기기 선정

의혹 즉각 해명”

전교조 전북지부

초등학교 ‘웨일북’ 보급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900억 원이나 소모되는 초등학교

‘웨일북’ 보급사업을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전북교육청의 행태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위원 명단 및 논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물품선정위원회에게 “기종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위원들은 “다정해놓고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교육청 전임 관계자들은 “기종을 미리 결정해놓은 적이 없다. 선정위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증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선정 의혹이 처음 불거져 나온 4월 28일에 전북교육청 관계자에게 “지문도 찍거나 선정위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했음을 볼 수 있는 회의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스마트기기 선정과 관련해 정작 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학생·교사에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별로 결정해서 수요조사 한 다음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내려보내 준다”면서 “학교마다 채택하는 기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기종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웨일북의 채택률은 가장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사람들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이라며 “현장 의견에 기반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의도로 확 질러서 내려보내면, 잘 쓰이지도 않고 고스란히 보관함에 보관하다 관리 연한이 지나면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로 배출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중·고 웨일북 선정현황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오늘 공유재산 수목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도교육청, 전주공고 시청각실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공유재산 수목관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유재산인 기관(학교)의 수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이다.

이날 교육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과 소속 유·초·공립중 및 공립고 재산업무담당자가 참석한다.

교육내용은 공유재산인 기관(학교)의 수목 조사 방법과 수목의 취득·누

락재산 등재 및 처분 절차 등의 K-에듀인시시스템 입력 요령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습연구회 ‘사계절 수목관리 가이드’와 협업하고, 도교육청 시설과 녹지직 주무관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앞으로 소속기관과 학교에 대한 수목관리 교육 및 업무매뉴얼 등을 보급해 수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선정 평가 진행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0일 2023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전주비전대학교가 보유한 ICC 특화분야 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공동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차년도 사업에서는 탄소섬유복합소재를 이용한 방사선 활용용 환자제 고장정지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해 산업체로의 기술이

전을 완료했다. 또 논문발표 3건과 시제품 제작지원 10건 등 성과를 창출해 지역산업체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정평가는 전문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 이를 통해 선정된 9개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올해 12월까지 총 298,000만원의 예산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최승훈 단장은 “이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기반이 취약한 대학, 지역산업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산업체와의 가치공유 및 기업 경쟁력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